

韓國 福利水準의 社會經濟的 空間構造

崔 珍 錫*

◀ 目 次 ▶	
1. 序 論	3. 福祉傾向面의 分析과 解釋
(1) 研究目的	(1) 上向 및 下向偏倚率
(2) 研究方法	(2) 要因分析
2. 社會福祉研究의 指標選定	4. 結 論

1. 序 論

(1) 研究目的

社會地理學에서의 空間은 人間集團의 場所의 行動 方向이 이루는 결과이며, 이는 다시 '人間集團의 活動範圍(Aktionsreichweite)'로 壓縮된다. 人間の 행동양식이 變化하면 이에 따라 各集團의 空間活動의 범위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空間構造에 變化가 오게 된다.¹⁾

지금까지 韓國의 近代化는 Hirschman의 不均衡成長論(unbalanced growth theory)²⁾에 입각 추진되었기에, 生産要素의 移動에 隘路(bottle neck)가 介在되어 누적적 不均衡이 야기됨으로 地域間經濟의 불균형을 誘發케 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放置할 때 社會構成員間의 異質性이 深化, 固着化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貧困地域住民이 認知하는 相對的 막단감의 누적은, 國家發展 및 地域成長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豫見된다.

本研究는 國家의 基本 통계 조사로서 國家의 모든 정책수립의 基礎資料로 이용되는 第12次 센서스의 發刊에 즈음하여, 韓國 近代化 이후의

一時點인 1980年末로 時系를 劃定하여 全國規模 181個單位地域을³⁾ 對象으로하여, 人間集團의 相異한 장소적 행동 方向의 結果가 지표공간에 여하히 投影되어져 있으며, 이로 因한 새로운 人間집단의 空間分化和 더불어 必然的 수반이 예상되는 개략적인 福祉傾向面(welfare surface, well-being surface)을⁴⁾ 分析, 考察코자 한다.

本稿에서는 근대화 이후의 급속한 都市成長, 工業벨트의 形成, 이에 起因된 人口分布의 偏在化, 그리고 社會經濟的 福利水準에 미취본 새로운 社會地理的 集團의 形成 및 空間分化등은 近代化라는 프로세스(process)와 脈絡을 같이 한다고 보아, 一聯의 프로세스에 의해 나타날 예되는 그 공간구조가 유사할 것으로 想定하였다.

만일 새로이 형성된 社會地理的 集團의 공간구조가 앞서 열거한 세가지와 一致한다면, 이러한 空間構造의 深化내지는 固着化의 예방을 위한 地域經濟計劃의 基礎資料提示에 그 目的을 두었다.

(2) 研究方法

지금까지 地域不均衡에 관한 事例研究는 國內·外的으로 많으나, '地理的 福利資料行列

* 公州師範大學 專任講師

1) 柳佑益, 1978, "地理學에 있어 空間概念의 問題에 對하여," 地理學論叢, 第5號, pp. 55-63.
 2) Nurkse, R.의 均衡成長論에 對立되는 不均衡成長의 代表로서 Hirschman, A.O.를 들 수 있음.
 3) 內務部, 1980, 地方行政區域要覽에 의거한 行政區域인 40市, 139郡, 2出張所(麗川, 半月)로 모두 181個單位地域임.
 4) Smith, D.M., 1977, *Human geography: A Welfare Approach*, Edward Arnold, pp. 59-60, 124-125, 246-247.

geographical welfare data matrix)⁵⁾이라는 概念의 틀에 照明하여, 全國규모의 사회경제적 복지 수준을 측정하여 概略的인 福祉傾向面이 나타내는 等值線(isolines)을 확인한 國內의 事例研究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本 研究에서는 1980年末 現在의 時點에서, 어떤 社會地理的 集團(社會階層)이 全國규모의 各 單位지역에서 어떠한 社會經濟的 福祉水準(生活의 質的 面에서)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人間 집단이 어떤 因果的 메카니즘에 의해 空間구조를 형성하였는가에 關係 알아보기 위해, 前記 系統을 利用하여 資料의 同時性의 長점을 살리는 한편, 社會經濟的 福祉水準을 所得水準에 焦點을 두어 考察하였다.

이러한 考察을 爲한 具體的인 分析技法으로, 첫째 同等水準指數(index of equality level)의 一種인 上向偏倚率(ratio of advantage)⁶⁾(以下 ROA로 略稱한다)을 指標變數別로 算出하여 地域別 社會經濟的 福祉水準을 測定, 考察하는 方法과, 둘째로 181個 單位地域을 行(row), 25個 變數를 列(column)로 하는 matrix을 作成하여 要因分析을 하고, 要因別 社會經濟的 福祉水準을 測定하는 2가지 計量技法을 使用하였다.

첫째의 技法인 ROA地域值에 依한 分析은 全國規模의 社會經濟的福祉水準에 對한 基礎的이며 概括的인 考察을 爲함이었고, 이러한 一般的인 福祉傾向面 分析으로 부터 보다 細部的이고 高次的인 分析을 爲해 둘째의 技法인 要因分析을 擇하였다.

2. 社會福祉(social well-being) 研究와 指標選定

‘空間的 福祉分析(spatial welfare analysis)’으로서의 人文地理學의 目的은 一聯의 記述(description), 說明(explanation), 評價(evaluation), 處方(prescription), 그리고 補完(implementation), 등의 發展的인 五段階의 過程을 들 수 있다.⁷⁾

첫段階인 ‘記述’에 該當되는 最初의 研究로서 Coates and Rawstron⁸⁾을 들 수 있고, 이어 Smith⁹⁾, Knox¹⁰⁾가 뒤를 이었고, 그 後에 많은 地理學者에 依해 經驗的 研究의 實績을 쌓아 왔다.¹¹⁾

國內의 ‘空間的 福祉分析’의 事例研究는 1977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研究가 있었으며¹²⁾, ‘記述(description)’ 段階에서 크게 公認하

5) *Ibid.*, p. 7, Figure 1.1.

——, as the study of who gets what where, and how,

who: 社會階層, 經濟的地位(economic status), 人種(race)

what: 滿足感(satisfaction), 幸福感(happiness), 生活의 質的 水準(a high or low life quality)

where: 研究地域의 單位地域(places or areas)

how: 構造, 過程, 因果的 메카니즘.

6) Haggett, Peter, 1979, *Geography: A Modern Synthesis*, Harper & Row, pp.521~523.

◦ 本稿에서 任意로 ‘Ratio of Advantage’를 上向偏倚率이라고 翻譯한.

◦ $ROA = \frac{xi(\%)}{Pi(\%)}$ 혹은 $\frac{xi(\%)}{Hi(\%)}$ (但, xi : 指標變數, Pi : 人口數, Hi : 家口數)

7) Smith, *op. cit.*, pp.9-10.

8) Coates, B.E. & Rawstron, E.M., 1971, *Regional Variations in Britain: Studies in Economic and Social Geography*, Batsford, London.

9) Smtih, D.M., 1973, *The Geography of Social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McGraw-Hill, New York.

10) Knox, P.L., 1974, “Level of Liv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Monitoring Regional Variations in Well-being,” *Regional Studies*, Vol. 8, pp.11-19; Knox, P.L., 1975, *Social Well-being: A Spatial Perspective*, University Press, Oxford.

11) Smith, 1977, *op. cit.*, pp.199-299.

12) 金庚星·朴英漢, 1977, “Economic Health의 地域的 不均衡性에 關한 研究,” 地理學, 第16號, pp.11-23.
金永聲·趙東奎, 1979, “韓國의 社會的健全性에 對한 時·空間隔差分析,” 地域開發論文集, 第8集, pp.55-73.

金永聲, 1980, “江原地域의 社會的 福利에 對한 時·空間的 隔差變動分析,” 地域開發論文集, 第9集, pp.47-60.

金永聲, 1980, “韓國都市의 社會的 福利에 對한 主成分 및 變化分析,” 地理學叢, 第8號, pp.35-51.

金永聲, 1981, “韓國의 都市間 生活環境의 差異에 關한 小考,” 地域開發論文集, 第10集, pp.29-38.

崔炳斗, 1981, “地域社會福祉와 그 改善策에 關한 研究: 經驗的考察,” 地理學, 第24號, pp.55-78.

崔珍錫, 1982, “忠南 小都邑 便益地設 環境의 質에 關한 研究—QOL指標를 中心으로—,” 公州師大論文集, 第20輯, pp.351-376.

었다.

‘地表的科學’으로서의 地理學은 地表事象에 內在된 空間의 秩序(spatial order)를 찾아 내고, 그것에 의해 空間秩序의 機構를 파악하여 法則理論化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研究者마다 研究主題에 相應하는 指標選定에 各별히 有意케 된다.

社會福祉의 概念은 그 根柢에 配分的正義라는 價値概念에서 본 ‘삶의 機會’의 擴大와, 보다 高次元의 公正社會(a fair society)의 達成에 두고 있다고 하겠다.¹³⁾

이러한 社會福祉概念의 史的 背景은 經濟의 成長, 政治·社會의 變動으로 發生되는 傳統의 崩壞, 文化의 斷切, 價値觀의 變動으로 自身이 處해 있는 社會의 狀態(social state)에 對한 막연한 不安感으로 부터, 人間生活의 質의 改善과 福祉의 向上을 위한 關心의 增大에서 社會指標開發의 背景을 찾을 수 있다.

社會指標開發에 대한 關心과 함께 最近에는 住民의 全般的인 ‘生活의 質’(quality of life)〈以下 QOL로 略稱한다〉指標를 開發하려는 努力이 行해지고 있다. 이것은 經濟의 生存과 成長을 克服함으로써, 보다 人間的인 面으로 開發政策이 變化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QOL指標는 經濟, 社會, 環境등의 모든 側面이 包含되는 것으로서, 아직 指標作成의 方法이나 有效性에 있어서 完全한 體系가 定立되어 있지는 않으나, 住民의 福祉와 QOL向上을 爲한 社會開發目標을 設定하는데 있어서 有用한 指標임에는 틀림이 없다.¹⁴⁾

이러한 包括的 意味의 QOL指標開發은 文化·歷史的 背景에 따라, 國家間, 地域間, 時·空間의 多少間의 相異性을 나타낼것은 分明하다.

더우기 社會福祉의 達成도 時·空間의 屬性을 갖기에 이에 符合되는 認識의 바탕위에서 可能한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國內의 先行研究는 健全性(health), 社會福祉(social well-being), 生活環境(environment for living), 生活水準(level of living)등의 觀點에서 나름대로의 指標選定을 하고 있으나, 包括的 意味의 QOL指標選定에 집착한 나머지 選定基準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고, 入手可能한 統計資料(發行年度의 不一致 및 data의 신빙성이 낮은)중 國외의 事例研究에서 選定된 指標들을 그대로 우리 나라에 適用시키려고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本稿에서는, 앞서 研究目的에서 밝혔듯이 近代化過程 以後에 새로이 地表空間에 投影되었을 것으로 豫想되는 社會地理的 集團의 空間分化 및 構造를 想定하였으므로, 指標選定을 集團構成員 및 家口當 所得에서 비롯되어 特性을 나타내는 이른바 社會經濟的 地位別差性을 究明할 수 있는 指標選定으로 範圍를 좁혔고, 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¹⁵⁾

3. 福祉傾向面の 分析과 解釋

(1) 上向 및 下向偏倚率

Gini系數, LQ指數, Lorenz曲線이 反映하는 概念과 類似한 ROA에 依據한 分析은 2가지로 區分된다. 첫째 要素別 ROA地域值에 의한 分析과, 둘째로 變數別 ROA值에 依한 概括的인 全國規模의 福祉傾向面에 對한 考察이 되겠다.

本稿에서의 社會地理的 集團(社會階層)의 空間分化에 對한 접근방법은, 社會學的 接近에서 援用되고 있는 3가지 方法중의 하나인 客觀的

13) Jones, Emrys & Eyles, John, 1977, *An Introduction to Social Geography*, Oxford Univ. Press, pp. 221-233.

14) 國土開發研究院, 1980, 地域計劃技法研究, pp. 398-400.

15) 要素Ⅰ: 住宅의 附帶煖房施設 및 占有實態(X₁); 立式부엌施設, X₂; 上水道施設, X₃; 水洗式便所施設, X₄; 溫水沐浴施設, X₅; 單獨 oil boiler 施設, X₆; 自家)

要素Ⅱ: 家口當文化施設保有度(X₇); piano(혹은 organ) 保有, X₈; 퉁어른 保有, X₉; 電話保有, X₁₀; 電氣冷藏庫保有, X₁₁; 電氣洗濯機保有, X₁₂; 新聞購讀, X₁₃; T.V. set保有)

要素Ⅲ: 教育水準程度(X₁₄); 初大·專門卒, X₁₅; 大學以上卒, X₁₆; 人文高卒, X₁₇; 實業高卒, X₁₈; 初大·專門在學, X₁₉; 大學以上在學, X₂₀; 大學以上中退)

要素Ⅳ: 炊事煖房燃料 및 施設(X₂₁); 炊事用 gas使用, X₂₂; 炊事用電氣使用, X₂₃; 煖房用oil使用, X₂₄; 中央煖房施設)

要素Ⅴ: 住宅建築年度 및 外壁材料(X₂₅); '70~'75年建築家屋, X₂₆; '76~'80年建築家屋, X₂₇; 赤벽돌, 등, X₂₈; 칠근콘크리트)

接近法을 사용하였다. 이른바 ‘그 사람(그집)이 어떻게 사나?’ ‘그 사람(그집)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나?’를 되도록 客觀的으로 알아 보려는 방법으로¹⁶⁾ ‘ROA值 固有的意味’¹⁷⁾가 이에 符合된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첫째의 要素別 ROA地域值에 依한 分析過程을 살펴보면;

① ROA算出公式에 의거 총 28個 變數에 걸쳐 총 181個 ROA地域值를 求하였다.

② 算出된 총 5,068個 ROA地域值를 要素 I, II, III, IV, V로 組合하였다.

③ 要素別 ROA地域值를 181 個單位地域別로 平均 ROA地域值를 求하고,

④ 各 要素別로 求해진 平均 ROA地域值에 對해 標準編差를 求하여, 이들 ROA平均地域值를 4個의 社會的 序列(social rank)¹⁸⁾로 群化하였다.

⑤ 총 181個의 單位地域은 이와같이 群化되어져 이른바 ‘社會經濟的 地位’의 特性에 比棼 본 社會地理的 集團의 空間分化가 分析·考察되었다(但, 要素V의 變數($X_{25} \sim X_{28}$)들은 要因分析을 爲한 前提로 選定되었기에 群化分析에서 除外하였다).

⑥ 空間分化된 社會地理的 集團을 表 및 圖化하였다(表 1.2.3.4, 그림 1, 2, 3, 4 參照).

둘째의 變數別 ROA值에 依한 概括的인 全國規模의 福祉傾向面의 分析은 앞서 밝힌 ‘ROA固有的意味’를 살려 ROA地域值 ≥ 1 일 경우는 上向偏倚地域(better off)인바 黑色 方眼으로, ROA地域值 < 1 일 경우는 下向偏倚地域(worse off)인바 이는 白色 方眼으로 表示한 Diagram을 作成하여(그림 5參照), 全國規模의 福祉傾向面이 平面上으로 如何히 反映되고 있나에 對한 視覺的 效果를 밝히는 分析·考察이었다.

(1) 上向 및 下向偏倚率에 의한 分析

分析過程에서 平均 ROA地域值에 의해 各 單位地域에 대해 A, B, C, D, 4등급으로 社會的 序

列을 구분한 바 있다.

이는 Z點數에 의한 換算인바 準據集團(reference group)으로 부터의 比較를 爲함이었다. 즉 A, B級은 準據集團으로 부터의 上廻를, C, D級은 下廻를 意味한다. 本稿에서의 意味는, 全國規模水準에 미취본 QOL水準이 各 要素別로 上向性을 나타내는 이른바 ‘上向偏倚地域(advantage area)’일 경우는 A, B級이고, 下向性인 ‘下向偏倚地域(disadvantage area)’일 경우는 C, D級으로 되어있다.

<表 1>에 依하면, A級은 24市(13.27%) 2郡(1.10%)이고, B級은 14市(7.73%) 26郡(14.36%)으로 上向偏倚地域은 38市(21.0%) 28郡(15.46%)으로서, 총 181個 單位地域의 36.46%인 $\frac{66}{181}$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反해 C級은 2市(1.10%) 110郡(60.78%)이고, D級은 3郡(1.66%)으로 총 181個 單位地域의 63.54%인 $\frac{115}{181}$ 로 나타나고 있다.

全國 規模水準에 미취본 要素 I인 住宅의 附帶, 煖房施設 및 占有實態面에서 본 QOL水準은 下向性地域이 上向의 約 倍에 達하는 極甚한 偏倚率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主要 大都市는 물론이고, 近代化以後의 新興工業都市인 浦項, 龜尾, 蔚山, 昌原, 半月, 麗川등지가 포함되는 이른바 工業化, 都市化, 人口偏在地域등이 QOL水準이 높은 새로운 社會地理的 集團의 活動範圍로 登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60年代 以後의 近代化過程에서, 工業地域에로의 農村地域人口의 壓出(push)에 起因된 社會地理的 空間構造의 變化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社會地理的 集團의 새로운 空間分化이다. 換言하면 ‘所得이 낮은 地域으로 부터 높은 地域으로 社會的 人口移動이 일어난다’¹⁹⁾는 見解와 一致된다.

<表 2>에 依하면, A級은 28市(15.47%) 2郡

16) 金瓚東, 1982, 現代의 社會學—社會學的關心—, 博英社, pp. 345-346.

17) Hagggett, *op. cit.*, p. 523, ‘Ratios above 1 indicate that a group is better off than the average group in the nation, and ratios below 1 that is worse off.’

18) 平均 ROA 地域值는 下記要領으로 A, B, C, D 4個의 Social Rank로, 各 單位地域은 넷중 擇一된 1가지 序列 부호가 負荷되어졌다. 즉 A級: $M + \sigma \leq \overline{ROA}$ 值, B級: $M \leq \overline{ROA}$ 值 $< M + \sigma$, C級: $M - \sigma \leq \overline{ROA}$ 值 $< M$, D級: \overline{ROA} 值 $< M - \sigma$. (但, M; 要素別 총 ROA值의 算術平均值, σ ; 標準編差)

19) 韓國開發研究院, 1976,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人口政策세미나綜合報告書), pp. 205-216.

〈表 1〉 要素 I의 等級別·市郡一覽表(1980. 11. 1 基準)

區分 QOL 等級	市	百分率 單位 地域數	郡	百分率 單位 地域數	累 計
B	議政府 東海 忠州 堤川 木浦 麗水 光州 順天 慶州 金泉 安東 鎮海 忠武 三千浦	7.73 14	平澤 始興 坡州 利川 安城 江華 三陟 達城 迎日 星州 晉陽 咸安 昌寧 密陽 梁山 金海 巨濟 固城 泗川 南海 山清 咸陽 陝川 宜寧 北濟川 南濟州	14.36 26	22.09 40
C	城南 榮州	1.10 2	楊州 南楊州 驪州 華城 高楊 廣州 漣川 抱川 加平 楊平 龍仁 金浦 瓮津 春城 洪川 橫城 原城 寧越 平昌 旌善 鐵原 華川 楊口 麟蹄 高城 襄陽 溟州 清原 報恩 沃川 永同 鎮川 槐山 陰城 中原 堤原 丹陽 錦山 大德 燕岐 公州 論山 扶餘 舒川 保寧 青陽 洪城 禮山 瑞山 唐津 牙山 天原 完州 茂朱 任實 南原 井邑 高敞 扶安 金堤 沃溝 益山 光山 潭陽 谷城 求禮 光陽 麗川 昇州 高興 寶城 和順 長興 康津 海南 靈岩 務安 羅州 咸平 靈光 長城 莞島 珍島 新安 軍威 義城 安東 青松 英陽 盈德 月城 永川 慶山 清道 高靈 漆谷 金陵 善山 尙州 聞慶 居昌 禮泉 榮豐 奉化 蔚珍 鬱陵 蔚州 義昌 統營 河東	60.78 110	61.88 112
D			鎮安 長水 淳昌	1.66 3	1.66 3
總 計		22.1 40		77.9 141	100 181

〈表 2〉 要素 II의 等級別市·郡一覽表(1980. 11. 1 基準)

區分 QOL 等級	市	百分率 單位 地域數	郡	百分率 單位 地域數	累 計
B	城南 議政府 東海 東草 忠州 堤川 天安 安東 榮州 昌原 三千浦 濟州	6.63 12	楊州 南楊州 平澤 坡州 高陽 廣州 金浦 江華 楊口 大德 達城 迎日 慶山 漆谷 梁山 金海	8.84 16	15.47 28

C			驪州 華城 漣川 抱川 加平 楊平 利川 龍仁 安城 甕津 春城 洪川 橫城 原城 寧越 平昌 旌善 鐵原 華川 麟蹄 高城 襄陽 溟州 三陟 報恩 沃川 永同 鎮川 槐山 陰城 中原 丹陽 錦山 燕岐 公州 論山 扶餘 舒川 保寧 青陽 洪城 禮山 瑞山 唐津 牙山 天原 完州 鎮安 茂朱 長水 任實 南原 淳昌 井邑 扶安 金堤 沃溝 益山 光山 潭陽 谷城 光陽 光陽 麗川 高興 寶城 長興 康津 海南 靈岩 務安 羅州 靈光 長城 莞島 軍威 義城 青松 青松 英陽 盈德 月城 永川 清道 高靈 星州 金陵 善山 尙州 聞慶 禮泉 榮豐 宜寧 咸安 鬱陵 晉陽 蔚州 義昌 統營 巨濟 固城 泗川 南海 河東 山清 咸陽 居昌 陝川 北濟州 南濟州 半月出張所	63.54 115	63.54 115
D			清原 堤原 高敞 昇州 和順 咸平 珍島 新安	4.42 8	4.42 8
總計		22.10 40		77.9 141	100 181

〈表 3〉 要素 III의 等級別 市·郡 一覽表(1980. 11. 基準)

區分 QOL 等級	市	百分率 單位 地域數	郡	百分率 單位 地域數	累計
A	서울 釜山 仁川 水原 議政府 安養 富川 春川 江陵 清州 忠州 大田 天安 全州 群山 裡里 光州 木浦 順天 大邱 浦項 金泉 安東 榮州 馬山 蔚山 晉州 昌原 鎮海 忠武 濟州	17.13 31			17.13 31
B	城南 原州 東海 麗水 慶州 龜尾	3.32 6	楊州 南楊州 平澤 華城 始興 高陽 安城 華川 三陟 大德 公州 沃溝 光山 達城 慶山 漆谷 尙州 密陽 梁山 金海 半月出張所 麗川出張所	12.15 22	15.47 28
C	束草 堤川 三千浦	1.66 3	驪州 坡州 廣州 漣川 抱川 加平 楊平 利川 龍仁 金浦 江華 甕津 春城 洪川 橫城 原城 寧越 平昌 旌善 鐵原 楊口 麟蹄 高城 襄陽 溟州 清原 報恩 沃川 永同 鎮川 槐山 陰城 中原 堤原 丹陽 錦山 燕岐 論山 扶餘 舒川 保寧 青陽 洪城 禮山 唐津 牙山 天原 完州 鎮安 任實 南原 淳昌 井邑 高敞 扶安 金堤 益川 潭陽 谷城 求禮 光陽 昇州 高興 寶城 和順 長興 康津 海南 靈岩 務安 羅州 咸平 靈光 長城 莞島 珍島 軍威 義城 安東 青松 盈德 迎日 月城 永川 清道 高靈 星州 金陵 善山 聞慶 禮泉 榮豐 奉化 蔚州 鬱陵 晉陽 宜寧 泗川 南海 河東 固城 北濟州 南濟州	62.98 114	64.64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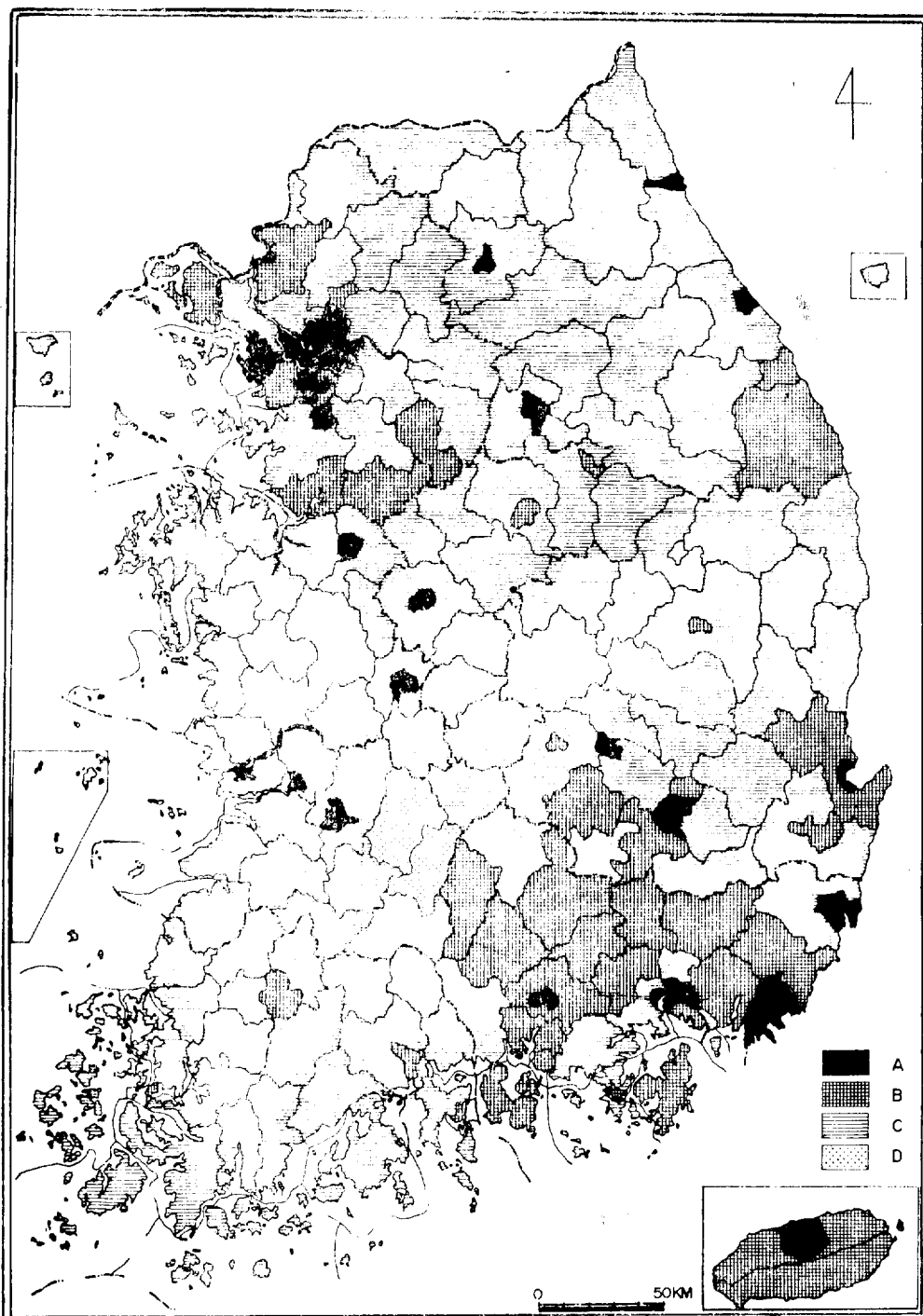


그림 1 要素 I에 의한 QOL水準別 空間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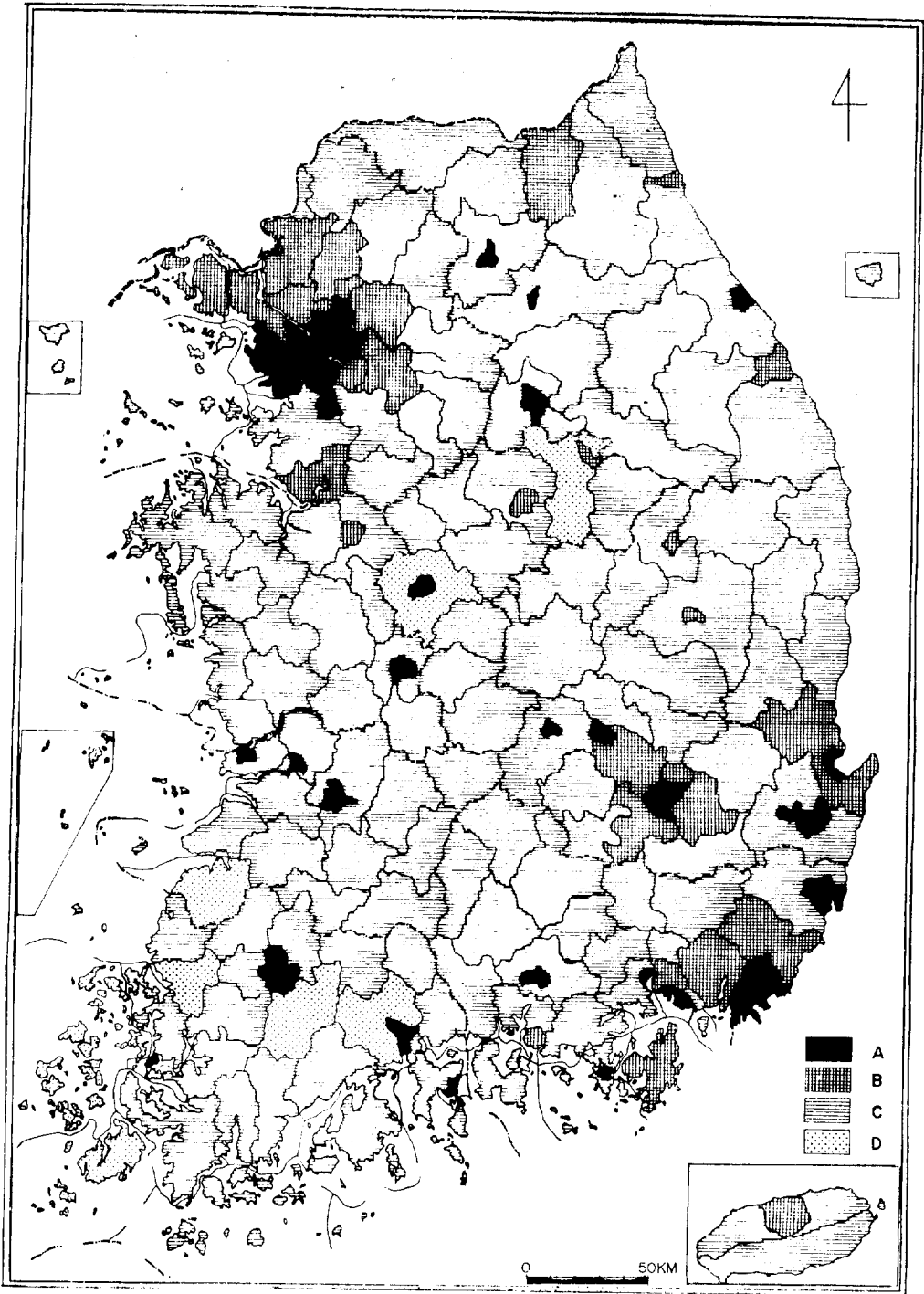


그림 2 要素 II에 의한 QOL水準別 空間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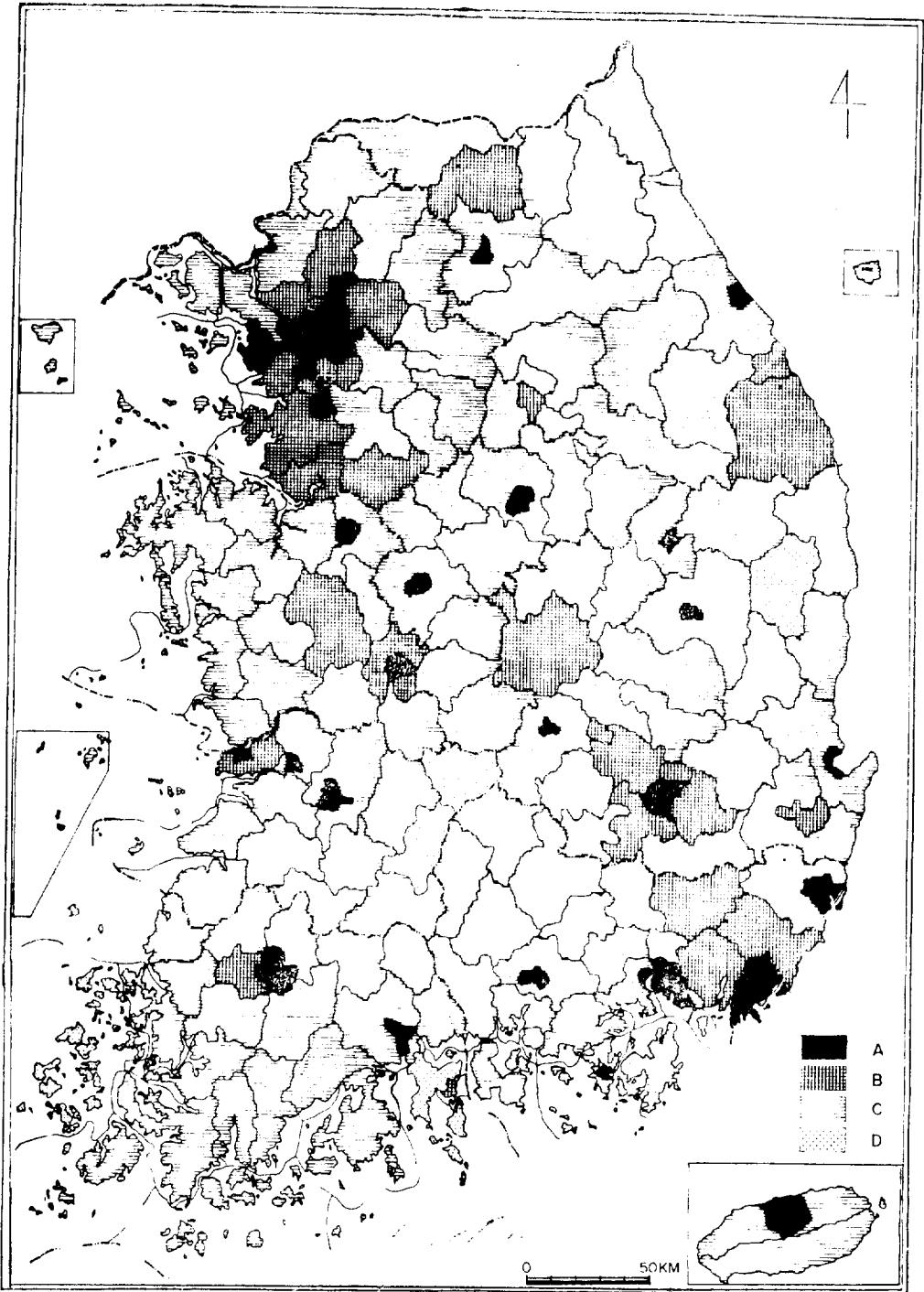


그림 3 要素 III에 의한 QOL水準別 空間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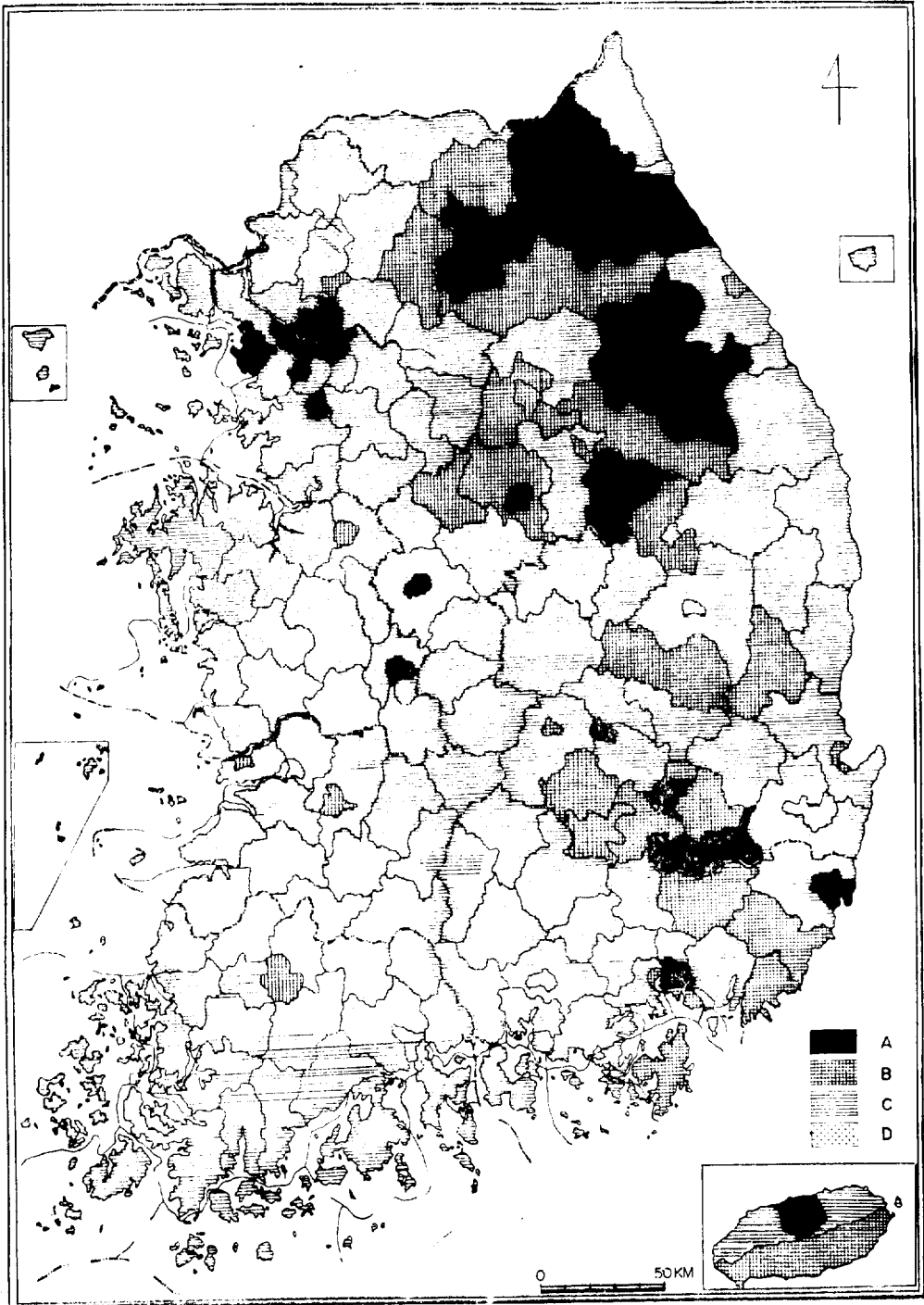


그림 4 要素 IV에 의한 QOL水準別 空間構造

총 181個 單位地域의 32.6%인 $\frac{59}{181}$ 인 반면에, C級은 3市(1.66%) 114郡(62.98%)이고, D級은 5郡(2.76%)으로 총 181개 單位地域의 67.4%인 $\frac{122}{181}$ 이 下向性을 나타내고 있다.

要素Ⅲ인 教育水準程度에서도 앞서 究明된 要素Ⅰ, Ⅱ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下向性地域이 압도적 多數를 占하고 있다.

특히 B級의 22個郡중에서 公州를 위시한 몇 個郡을 除外하면, 거의 例外없이 大都市 近接地域들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經濟영향'에 起因된 次下位의 QOL水準인 것으로 思料된다.

끝으로 <表 4>에 依하면, A級은 14市(7.73%) 9郡(4.97%)이고, B級은 13市(7.18%) 18郡(9.95%)으로서, 上向偏倚地域은 27市(14.91%) 27郡(14.92%)으로, 총 181個 單位地域의 29.83%인 $\frac{54}{181}$ 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C級은 13市(7.18%) 114郡(62.99%)이며, D級은 해당 市郡이 없다. 이리하여 총 181個 單位地域의 70.17%인 $\frac{127}{181}$ 이 下向偏倚地域으로 나타나고 있다.

要素Ⅳ인 炊事煖房燃料과 그 施設面에서도, 앞서 究明된 諸要素의 경우와 같이 上·下向의 配分率이 大同小異하나, 特記할 事項으론 27個郡이 上向偏倚地域으로 나타나, 尙적으로 市의 그것과 꼭 같으며, 反面에 13市가 下向偏倚地域에 속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炊事, 煖房燃料과 그 施設은 要素Ⅰ, Ⅱ, Ⅲ과는 달리 어느程度 QOL水準이 混在되어 있음을 意味하나, 이것 역시 多數의 郡地域들이 傳統的 관습에서 크게 脫皮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の 要素Ⅰ, Ⅱ, Ⅲ, Ⅳ에 依한 分析結果를 綜合 考察하면;

1960年以來的의 近代化過程 以後 社會經濟的 福

利水準에 비취 본 우리 나라의 社會空間構造는 兩分化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兩分形態는 2·3次 產業機能 中心의 比較的 上向性 QOL水準을 반영하는 都市群地域과, 1次 產業機能中心의 相對的 下向性 QOL水準을 반영하는 農漁村群地域이다.

나아가 Lösch의 工業立地論에서 提起되었던 集積利益의 距離凋落(distance-decay)法則性이 地表空間에 投影되어, 이것이 福祉傾向面에도 그대로 適用되어 結果(output)로 反映됨을 發見할 수 있다.²¹⁾

換言하면, 不均衡成長論에 바탕을 두어 全國的으로 散在한 成長據點(growth pole)인 大都市 및 新興工業 벨트地域들이 上向性을, 大都市 및 工業地域의 近接地域들이 中位性을, 農漁村地域들이 下向性을 나타내는 '福祉水準의 等值線(welfare contour)'을 읽을 수 있다.

이리하여 '社會經濟的 地位側面'에서 새로운 社會地理的 集團의 活動空間(action space)이 形成되어 社會體系의 階層構造가 形成되어 가고 있다. 이른바 전통적 生活樣式이 繼承·發展되어 가고있는 農漁村地域의 '共同協力 社會'의 要素²²⁾와, 近代化로 인한 급격한 생활양식의 變바꿈이 시도되고 있는 工業化된 都市地域에서의 '利益社會'의 要素로²³⁾ 社會地域이 形成·深化되어 가고 있다고 思料된다.

(2) Diagram에 依한 分析

앞의 分析過程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本 diagram은 총 5,068個 方眼으로 되어있으며, 이 중 黑色方眼은 上向偏倚地域을, 白色方眼은 下向偏倚地域을 나타내고 있다.

Diagram의 縱軸(Y)에 총 181個의 單位地域을²⁴⁾, 橫軸(X)에는 총 28個 變數들을(※註 15參照) 나열하였고, 右側上端의 ⊕欄에는 ROA地域

21) Ibid., pp. 378-382.

22) Jones & Eyles, *op. cit.*, p. 14.

23) Ibid., pp. 19-23.

24) 1. 서울市 2.釜山市 3.仁川市 4.水原市 5.城南市 9.議政府市 7.安養市 8.富川市 9.楊州郡 10.南楊州郡 11.壘州郡 12.平澤郡 13.華城郡 14.始興郡 15.坡州郡 16.高陽郡 17.廣州郡 18.漣川郡 19.抱川郡 20.加平郡 21.楊平郡 22.利川郡 23.龍仁郡 24.安城郡 25.金浦郡 26.江華郡 27.瓮津郡 28.春川市 29.原州市 30.東海市 31.江陵市 32.東草市 33.春城郡 34.洪川郡 35.橫城郡 36.原城郡 37.寧越郡 38.平昌郡 39.旌善郡 40.鐵原郡 41.華川郡 42.楊口郡 43.麟蹄郡 44.高城郡 45.襄陽郡 46.溟州郡 47.三陟郡 48.清州市 49.忠州市 50.堤川郡 51.清原郡 52.報恩郡 53.沃川郡 54.永同郡 55.鎭川郡 56.槐山郡 57.陰城郡 58.中原郡 59.堤原郡 60.丹陽郡 61.大田市 62.天安市 63.錦山郡 64.大德郡 65.燕岐郡 66.公州郡 67.論山郡 68.扶餘郡 69.舒川郡 70.保寧郡 71.青陽郡 72.洪城郡 73.禮

值>1인 黑色方眼의 集計를, ⊖欄에는 ROA地域 值<1인 白色方眼의 集計된 數를 나타내고 있다.

위와같은 要領으로 作成된 本 diagram을 分析 考察한 結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총 5,068個의 方眼을 黑色과 白色으로 分離集計한 結果, 총 方眼의 18.23%인 924個 方眼이 黑色인 ⊕로, 나머지 81.77%인 4,144個 方眼이 白色인 ⊖로 配分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最小限 本研究에 限해서 볼때,²⁵⁾ 우리 나라 全體의 約 $\frac{4}{5}$ 가 下向偏倚率을 나타내고 있는 反面에, 나머지 約 $\frac{1}{5}$ 이 上向偏倚率을 反映하는 極甚한 偏布傾向의 兩分現象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黑色方眼인 924個 方眼은 대체로 9個로 群化되어, 集中偏布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首都圈의 서울, 仁川, 水原, 安養, 富川市 등지와 釜山市를 包含하는 우리나라의 兩極地域에 江原道の 春川, 原州, 東海, 江陵市에, 忠北의 淸州, 忠州市에, 忠南의 大田, 天安市에, 全北의 全州, 群山, 裡里市에, 全南의 光州, 木浦, 麗水, 順天市에, 慶北의 大邱, 浦項, 龜尾市에, 慶南의 馬山, 蔚山, 晉州, 昌原, 鎭海, 忠武市에, 濟州道の 濟州市에 그리고 半月 및 麗川出張所등의 이른바 工業化 및 都市化地域들에 $\frac{505}{924}$ 로 54.65%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총 181個 單位地域의 불과 18.23%인 33個 都市群地域이 約 $\frac{1}{2}$ 以上인 54.65%의 變數別 上向偏倚率을 나타내는 반면에, 총 單位地域의 81.77%인 郡地域들이 約 $\frac{1}{2}$ 以下인 43.35%의 上向偏倚率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配分

率의 意味인 ROA地域值가 意味하는 바를 再吟味케 한다.

셋째로 Y軸方向으로 ⊕인 黑色方眼이 대체로 鮮明히 나타나는 4個變數를 發見할 수 있다. 이른바 X_2 인 上水道施設, X_6 인 自家所有, X_{13} 인 T.V. set保有, X_{22} 인 炊事用電氣使用등의 變數들이다. 이들은 全國의으로 골고루 採擇된 變數들인바 이를 解析하면, ① 上水道施設의 普及率은 대체로 都市地域과 慶南一圓에 걸쳐 높게 反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家屋의 質, 規模를 論외로 한다면, 自家普及率은 대체로 양호하나, 都市群地域에서 相對的으로 白色方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借家率이 높은 심한 住宅不足現實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③ T.V. set의 普及率은 全國的으로 골고루 높게 反映되고 있다. ④ 近代化過程과 더불어 全國的인 電化事業의 推進結果로, 에너지 資源의 하나인 電力事情이 대체로 良好하다는 解析을 내릴 수 있겠다.

넷째로 全南의 光山을 위시한 22個郡地域들과 全北의 完州를 비롯한 13個郡地域들인 이른바 湖南地方의 35個地域들은 우리 나라의 곡창지대인 典型的인 1次産業機能의 地表空間으로서, X_6 인 自家保有變數를 除外한 나머지 變數들은 거의 相對的인 下向性을 나타내고 있음은 특히 注目해야 될 事實로 認識되어야겠다.

즉 1960年 以來 近代化過程이 빚어낸 새로운 社會地理的 集團에 依해 創出된 社會地理的 意味를 지닌 空間構造라고 볼 수 있겠다.

(2) 要因分析

ROA值에 依한 分析은 概括的이며, 配分率的

- | | | | | | | | | | |
|----------|----------|----------|----------|----------|-----------|-----------|------------|------------|----------|
| 山郡 | 74. 瑞山郡 | 75. 唐津郡 | 76. 牙山郡 | 77. 天原郡 | 78. 全州市 | 79. 群山市 | 80. 裡里市 | 81. 完州郡 | 82. 鎭安郡 |
| 83. 茂朱郡 | 84. 長水郡 | 85. 任實郡 | 86. 南原郡 | 87. 淳昌郡 | 88. 井邑郡 | 89. 高敞郡 | 90. 扶安郡 | 91. 金堤郡 | 92. 沃溝郡 |
| 93. 益山郡 | 94. 光州市 | 95. 木浦市 | 96. 麗水市 | 67. 順天市 | 98. 光山郡 | 99. 潭陽郡 | 100. 谷城郡 | 101. 求禮郡 | 102. 光陽郡 |
| 103. 麗川郡 | 104. 昇州郡 | 105. 高興郡 | 106. 寶城郡 | 107. 和順郡 | 108. 長興郡 | 109. 康津郡 | 110. 海南郡 | 111. 靈岩郡 | 112. 務安郡 |
| 113. 羅州郡 | 114. 咸平郡 | 115. 靈光郡 | 116. 長城郡 | 117. 莞島郡 | 118. 珍島郡 | 119. 新安郡 | 120. 大邱市 | 121. 浦項市 | 122. 慶州市 |
| 123. 金泉市 | 124. 安東市 | 125. 龜尾市 | 126. 榮州市 | 127. 達城郡 | 128. 軍威郡 | 129. 義城郡 | 130. 安東郡 | 131. 青松郡 | 132. 英陽郡 |
| 133. 盈德郡 | 134. 迎日郡 | 135. 月城郡 | 136. 永川郡 | 137. 慶山郡 | 138. 淸道郡 | 139. 高靈郡 | 140. 星州郡 | 141. 漆谷郡 | 142. 金陵郡 |
| 143. 善山郡 | 144. 尙州郡 | 145. 聞慶郡 | 146. 醴泉郡 | 147. 榮豐郡 | 148. 奉化郡 | 149. 蔚珍郡 | 150. 鬱陵郡 | 151. 馬山市 | 152. 蔚山市 |
| 153. 晉州市 | 154. 昌原市 | 155. 鎭海市 | 156. 忠武市 | 157. 三浦市 | 158. 晉陽郡 | 159. 宜寧郡 | 160. 咸安郡 | 161. 昌寧郡 | 162. 密陽郡 |
| 163. 梁山郡 | 164. 蔚州郡 | 165. 金海郡 | 166. 義昌郡 | 167. 統營郡 | 168. 巨濟郡 | 169. 固城郡 | 170. 泗川郡 | 171. 南海郡 | 172. 河東郡 |
| 173. 山淸郡 | 174. 咸陽郡 | 175. 居昌郡 | 176. 陝川郡 | 177. 濟州市 | 178. 北濟州郡 | 179. 南濟州郡 | 180. 半月出張所 | 181. 麗川出張所 | |

25) 本研究의 主題가 意味하는 '社會經濟的(socio-economic)福利水準'에 比취본 福祉傾向面的 경우를 뜻함. (28個變數×181個單位地域=5,608個의 流動的인 假說的인 地表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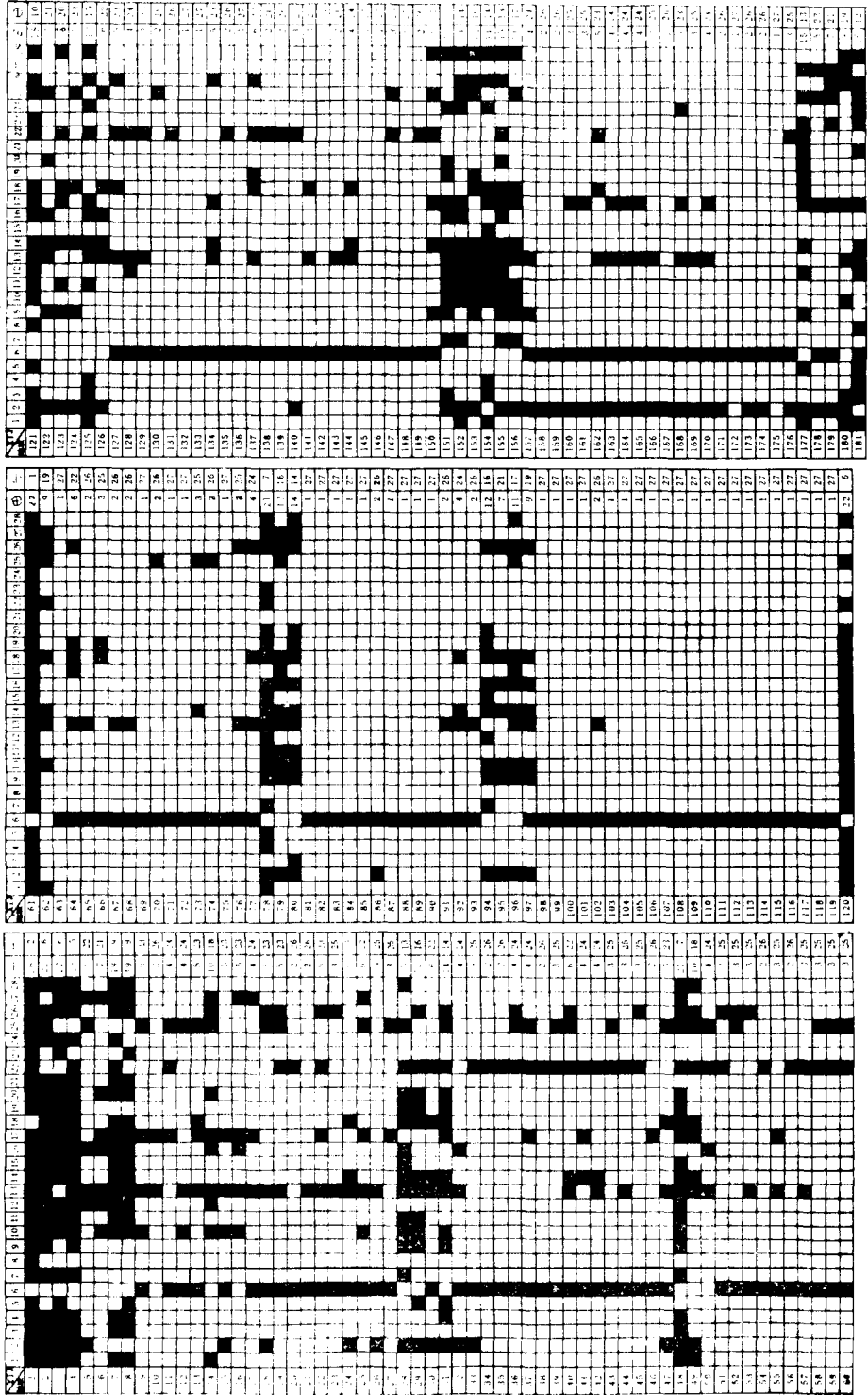


그림 5 ROA에 의한 변數別 上向 및 下向偏倚地域 Diagram.

인 意味과악에 불과하므로, 보다 高次的인 要因分析技法을 통해 25個 變數²⁶⁾들로 부터 共通의 새로운 變因(factor)을 抽出하고, 이에 依에 社會地理的 集團의 空間分化相을 考察키로 하였다. 이는 前者의 技法으로 부터 얻어낸 要素別 패턴과 相互對比할 目的과 더불어, 널리 一般化된 工業化, 都市化, 人口偏在化 패턴을 統合한 새로운 要因이 과연 一致될 것인가에 關心을 둔 分析이다. 즉 '181×25'의 資料行列을 要因分析하였다.²⁷⁾

要因分析의 技法에 의해 觀測值를 標準化하여²⁸⁾ 相關行列을 作成하고, 그 相關行列을 利用하여 固有值(eigen value)와 固有벡터를 계산하고, 各 要因의 說明量 및 累積說明量, 要因得點(factor score)을 계산하였다.

本稿에서는 앞서 提示된 '181×25' 資料行列에 要因分析을 적용 斜角回轉(oblique rotation)을 시켜, 固有值 1.0 以上을 抽出했으며, 그 때의 累積說明量은 72.4%이며, 要因은 2個였다.

이리하여 各 要因別로 구분하여 地域別 要因得點에 의한 地圖化를 하였다(그림 6, 7 參照), 이에 의해 새로운 空間構造를 分析·考察키로 하였다.

이에 앞서 要因別 固有值, 說明量(Pct of VAR) 및 累積說明量(CUM Pct)을 提示하는 表 <表 5 參照>와, 要因行列表 <表 6 參照>를 作成하였다.

이와같은 要因分析의 意義는 多數의 變量을 代表할 수 있는 小數의 說明變量인 統合된 새로운 要因의 抽出에 둔 것이므로, 本稿에서는 各 要因別로 社會地理的 集團의 空間構造가 如何히 地表空間에 役影되어져 있나를 上向偏倚率에 依한 結果와 比較코자 한다.

1) 空間構造類型的 設定

本研究는 社會經濟的 福利水準에 따른 空間變異를 分析하기 위하여 單位地域別 要因得點에 依하여 5個 社會地理的集團으로 群化(group)하여 地域類型을 設定하였다.

要因 I, II 共히 A Group은 要因得點이 2이

<表 5> 要因別 固有值, 說明量 및 累積說明量

FACTOR	EIGENVALUE	PCT OF VAR	CUM PCT
1	16.94066	67.8	67.8
2	1.15794	4.6	72.4

<表 6> 要因行列表(Factor matrix)

	FACTOR 1	FACTOR 2
AV1(立式부엌시설)	0.86122	0.21361
AV3(水洗式便所시설)	0.90282	0.02561
AV4(온수목욕시설)	0.90681	0.09522
AV5(단독 oil boiler 시설)	0.85160	0.12484
AV6(自家)	-0.89924	0.06787
AV7(piano보유)	0.88259	0.01031
AV8(룸에어콘보유)	0.84618	-0.07687
AV9(전화보유)	0.78361	-0.37219
AV10(전기냉장고보유)	0.92142	0.04102
AV11(전기세탁기보유)	0.97871	-0.15041
AV12(신문구독)	0.87509	-0.06494
AV13(T.V set 보유)	0.66797	0.04361
AV14(초급대·전문대졸)	0.76065	-0.32556
AV15(대학이상졸)	0.96161	-0.03417
AV16(인문고졸)	0.81944	-0.03063
AV17(실업고졸)	0.67706	0.09989
AV18(초급대·전문대재학)	0.68711	-0.04234
AV19(대학이상재학)	0.72864	0.12270
AV20(대학이상중퇴)	0.83206	0.10440
AV21(취사용 gas사용)	0.81611	0.17292
AV23(난방용 oil 사용)	0.80486	0.01308
AV24(중앙난방시설)	0.68668	0.00718
AV26(1976~1980년 건축가옥)	0.61785	0.38522
AV27(적벽돌·돌사용)	0.53444	0.48969
AV28(철근콘크리트사용)	0.85493	-0.13076

上, B Group은 $1 \leq \text{factor score} < 2$, C Group은 $0 \leq \text{factor score} < 1$, D Group은 $-1 \leq \text{factor score} < 0$, E Group은 $\text{factor score} < -1$ 로 하였다.

各 Group이 意味하는 地域類型에 對한 說明은 要因別로 다음과 같다.

2) 第 I 要因의 空間變異

<表 6>에서 提示된 바와 같이 要因은 全變數가 0.4 以上の 벡터값을 나타내는 높은 要因負荷量(factor loading)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직 V_6

26) 28個 變數중 X_2 ; 上水道施設, X_{22} ; 炊事用電氣使用, X_{25} ; '70~'75年建築家屋 등 3變數는 數次에 걸친 factor analysis과정에서 'skewness'가 크기 때문에 除外시켰다.

27) 서울대 電算所에 소장된 SPSS의 factor analysis program을 이용 電算처리하였다.

28) 本稿에서는 諸變數의 觀測值를 'ROA地域值'로 換算하여 標準化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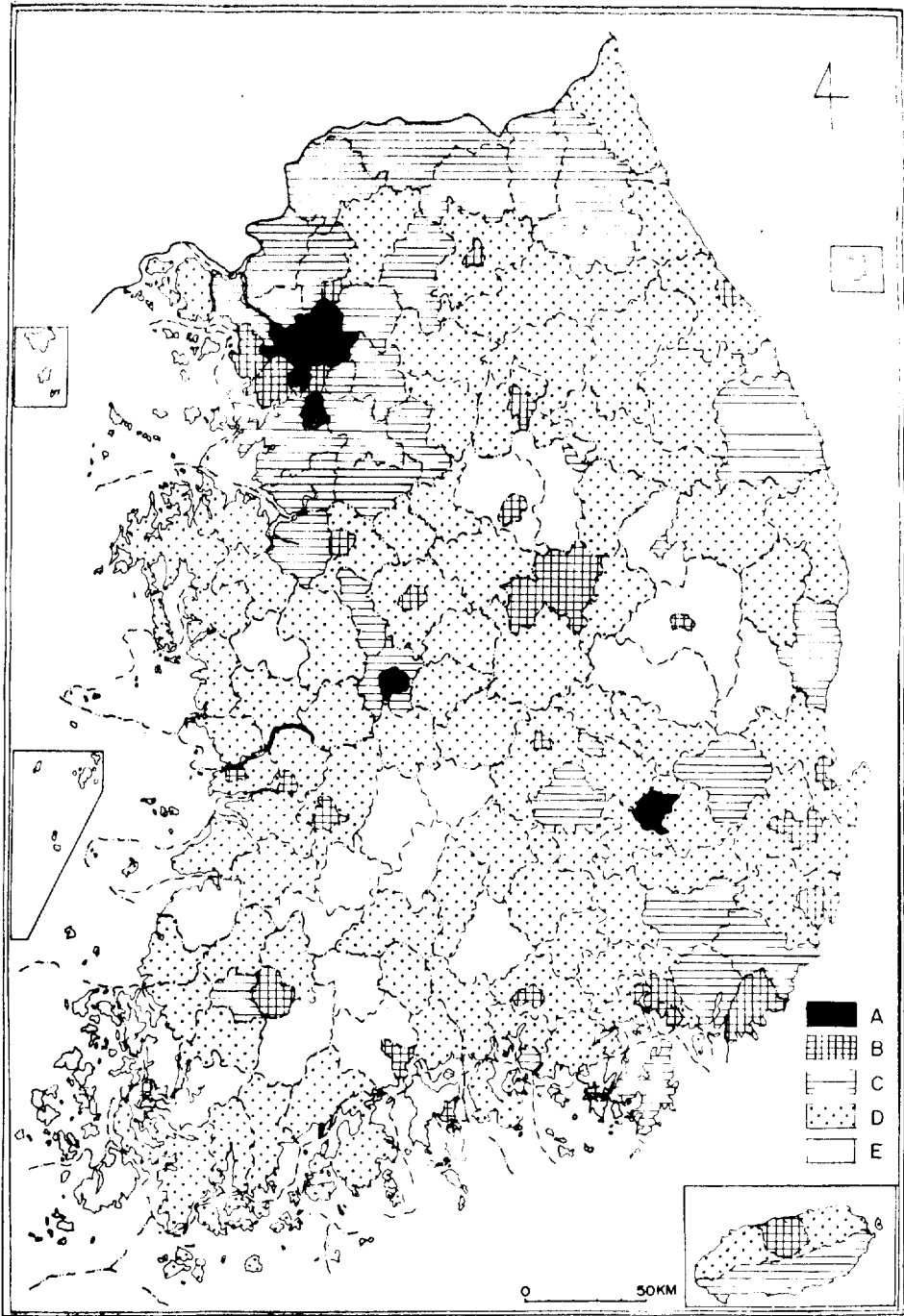


그림 6 要因 I에 의한 空間構造

A : factor score ≥ 2 B : $1 \leq$ factor score < 2 C : $0 \leq$ factor score < 1
 D : $-1 \leq$ factor score < 0 E : factor score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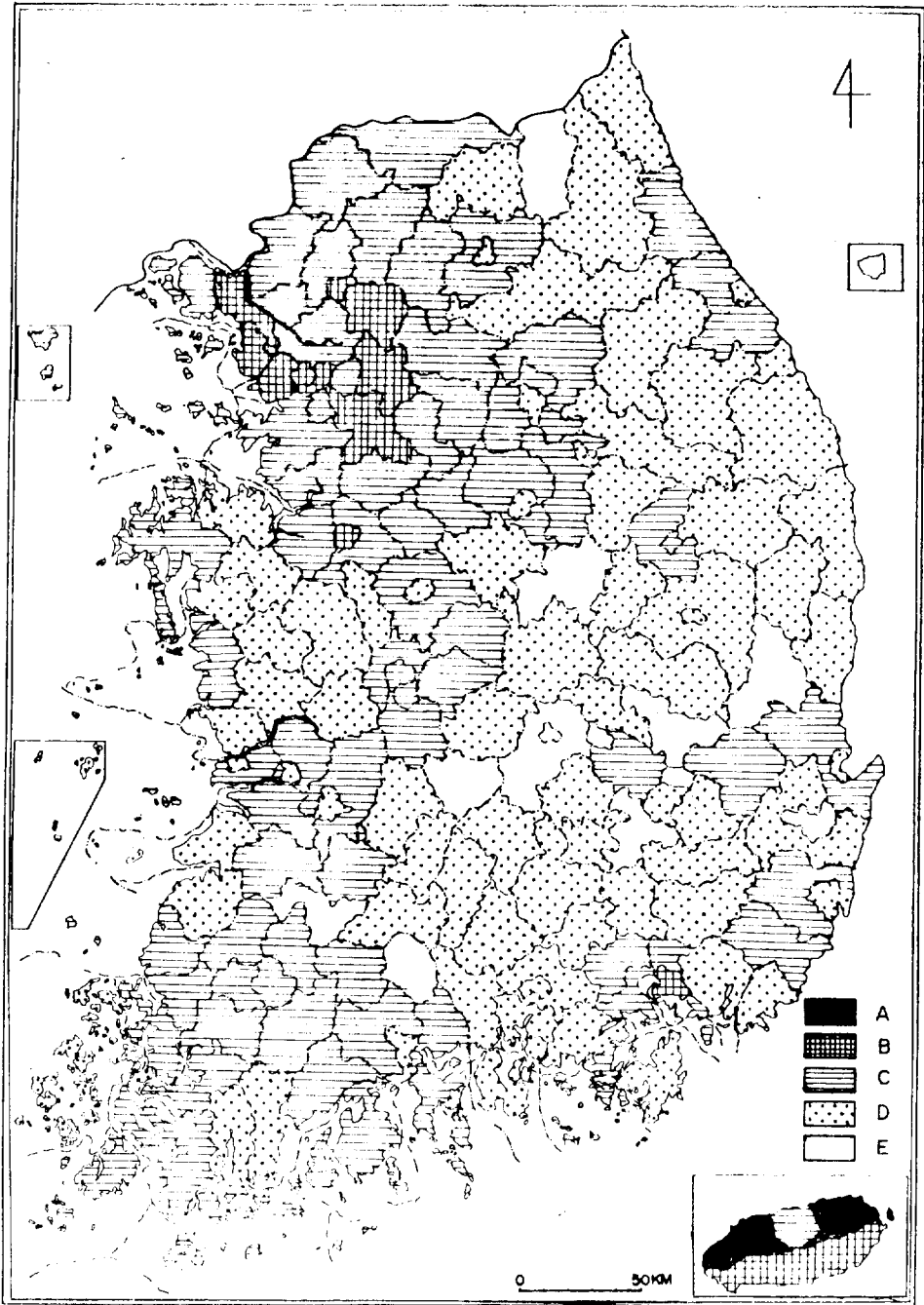


그림 7 要因 II에 依한 空間構造

A : factor score ≥ 2

B : $1 \leq$ factor score < 2

C : $0 \leq$ factor score < 1

D : $-1 \leq$ factor score < 0

E : factor score < -1

인 自家단이 負의 方向이다. 그리고 <表 5>에서 提示된 固有値는 16.94066이고, 說明量은 67.8%로 全變量을 거의 代表할 수 있는 要因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特性의 要因 I에 依한 地域類型은 그림 6과 같다(그림 6參照).

그림 6을 考察하면, 앞서 'ROA地域值'에 依한 空間構造와 매우 類似한 類型으로, 우리 나라의 都市 및 工業化패턴은 물론이고, 人口偏在 地域패턴과도 매우 類似하게 나타나므로, 이는 '社會經濟的 地位(socioeconomic status)' 要因이라고 命名할 수 있겠다.

換言하면 全國的으로 散在된 成長據點인 工業地域과 都市群地域이 要因得點이 正의 方向으로 반영되는 이른바 上向性을, 그리고 나머지인 대부분의 郡地域인 農漁村이 要因得點 0以下인 負로 나타나 下向性인 D·E Group에 속하고 있다.

특히 首都圈一圓, 東南海岸工業 belt 등이 A, B Group에 속하고 있음은 不均衡成長論에 立脚, 推進된 經濟空間(economic space)의 兩極化 現象을 그대로 反映함과 동시에, 이로인한 社會經濟的 福祉水準의 空間變異를 露呈하고 있다.

3) 第Ⅱ 要因의 空間變異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要因 II는 固有値 1.15794로 說明量이 불과 4.8%로 全變量의 極히 一部分을 代表할 수 있는 것으로, 表 6에서 볼 수 있듯이 住宅의 附帶, 煖房施設 및 占有實態를 意味하는 變數群(V_1, V_3, V_4, V_5, V_6)과 一部 다른 變數들만이 正의 方向이나 모두 0.4백터 이하이며, 오직 V_{27} 인 住宅의 外壁材料만이 0.4백터 以上이다, 反面에 要因 I에서 正의 方向으로 要因負荷量이 높았던 變數들은, 거의 모두 負의 方向을 나타냄과 동시에 백터값도 낮다.

이러한 要因負荷量의 意味가 지니는 바를 正確히 抽出하기 쉬운 要因은 아닌 듯하나, A, B, C Group에 속하는 都市群地域은 仁川을 위시하여 14個 地域인데 비하여, C, D Group에 26個 都市群 地域이 속하고 있어 要因의 特性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된다.

以上과 같이 要因分析한 結果를 綜合考察하면, 說明量 67.8%로 全變量을 代表할 수 있다고 보이는 要因 I은, 'ROA地域值'에 依한 社會地理

的 集團의 空間構造分화와 相當히 類似패턴으로 나타났다.

換言하면, '社會經濟的 地位' 要因이라고 한 要因 I은, 近代化過程 以後의 社會地理的 集團에 依한 새로운 地表空間의 創出을 강력히 뒷받침 하는 要因이었음을 시사해 주었다고 思料된다.

4. 結 論

韓國은 1960年 以來로 經濟開發의 國家政策이 國民經濟的 總量의 成長을 極大化하는 效率性에 目標을 두어 成長據點中心의 不均衡成長論에 입각, 經濟政策을 추진 해왔다.

20여년간의 經濟政策의 結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12次 센서스 資料를 利用한 本 研究는, '地理的 福祉資料行列'이라는 개념을 도입, 새로이 創出되었을 것으로 豫상된 社會地理的 空間에 焦點을 두어, 이것의 空間變異 및 福祉傾向面을 分析·考察하였다.

그리고 '上向偏倚率'에 의한 概觀과 '要因分析'에 의한 高次的인 2가지 技法을 併行하여 分析한 結果, 工業化, 都市化, 人口의 偏在化등의 패턴을 誘發한 프로세스가 社會地理的 集團(社會階層)의 空間構造 및 福祉傾向面과 脈絡을 같이 하는 因果的 메카니즘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몇가지 結論을 얻게 되었다.

1. 2, 3次 產業機能中心의 都市群地域의 '生活의 質(QOL)'의 水準이 1次 產業中心의 農漁村의 그것보다 相對的으로 上向性을 反映하였다.

2. 工業化 및 大都市地域群을 頂點으로 하여 福祉傾向面이 漸減하는 樣相으로 나타나 距離凋落의 法則이 適用되었다.

3. 經濟政策의 累積의 結果를 그대로 反映하는 듯이, '生活의 質'의 水準이 나타내는 偏倚率도 首都圈과 東南海岸工業 belt로 크게 兩極化된 空間構造를 나타내고 있었다.

위와같은 構造의 社會空間의 放置는 地域間的 異質性을 深化, 固着化시켜 高질적인 人口偏在現象을 더욱 加重시킬 可能性을 全然 排除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人本主義的인 開發政策이 時急히 提高되어야 할 必要性을 切感케 한다.

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in Socioeconomic Welfare Level in Korea

Jin-Suk Choi*

Summary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driven forward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on the basis of the unbalanced growth theory and has given special priority to the growth poles for the greatest efficiency of economic growth during the latest two decades.

According to the publication of the 12th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of 1980—the basic materials of various economic policy-making, the spatial variations and the welfare trend surfaces made by the socio-geographical groups are analyzed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attaining the tasks of this study, the concept of geographical welfare data matrix is used to analyze the subject matter above. All the spatial structures of the socio-geographical groups are expected to be newly created as action space on a national scale.

Two quantitative techniques are used to analyze the subject matters mentioned above: one is 'Ratio of Advantage'—one of the indices of the equality level for the general survey—and the other is 'Factor Analysis' which is more useful in the identification of regional systems. In this study 28 social indicators were selected which are connected with the level of income by a household unit or a population group, and these are as follows;

- 1) kind of facilities of housing units:
modern kitchen (X1), equipped pi-

ped water system (X2), flush toilet (X3), hot and cold water bath(X4) and piped oil boiler system (X5).

- 2) housing units by type of occupation:
tenure owned (X6).
- 3) kind of household appliances in ordinary households:
piano(or organ) (X7), room air conditioner (X8), telephone (X9), refrigerator (X10), washing machine (X11), newspaper (X12) and T.V. set (X13).
- 4) educational attainment completed:
junior college (X14), college or higher (X15), general high school (X16) and vocational high school (X17).
- 5) school attendance:
junior college (X18), college or higher (X19) and college or higher not completed (X20).
- 6) fuel used for cooking:
gas (X21) and electricity (X22).
- 7) fuel used for heating:
oil (X23) and central heating system (X24).
- 8) housing units by year of construction:
'70~75 (X25) and '76~80 (X26).
- 9) housing units by construction materials used:
brick or stone (X27) and ferro-concrete (X2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No. 28, pp.66-85, 1983.

* Lecturer, Kongju National Teachers College.

1.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of urban regions having functions of the second and third industry turns out to be higher than that of rural regions.
2. The welfare trend surface decreases gradually from the vertex of industrial and urban regions to the rural regions and the distance-decay rule applies here.
3. The ratio of disadvantage or ratio of advantage representing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and economic impacts reflecting the cumulative results of economic policies

turns out to be bipolarized greatl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 and the South-east Coastal Industrial Belt.

In conclusion, the negligence concerning the unbalance of the structural social space will increase and gradually fix social segregation among regions and accelerate the maldistribution of population. Accordingly, the humanistic economic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along with rapid economic growth.